



전주기전대 운동재활과·강원대 스포츠과학과 협약

전주기전대학 운동재활과(학과장, 이종민)는 강원대학교 스포츠과학과(학과장, 황환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양 대학 교수진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학 및 학과 간 상호 유기적인 연계 교육과정 강화, 공동연구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등에 합의했다.

강원대학교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지방 거점 국립대로, 전주기전대학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 위치한 이점으로 서로 간 공유·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전주기전대학 운동재활과 김보람 교수는 "수도권 대학교에 편입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우리 학생들이 진로 진학 역량을 강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합동 농촌일손돕기·환경정화활동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는 지난 21일,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과 농신보 남원권역보증센터(센터장 이성로),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도본부 남부사무소(소장 이지영) 임직원 30여명 등이 남원농협 묘목장 및 인근 마을에서 합동 농촌일손돕기 및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은 농업인 일손 경감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것으로 남원농협서 가꾼 배추 모종을 농업인 7,500여명에게 1인당 1판을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한 포장 및 운송작업과 인근 마을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동동 지사협, 1일1가구 소통행정 반찬 지원

남원시 동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장동진, 소년자 민귀원)는 22일, 1일1가구 소통행정을 통한 가정방문에서 발굴한 결식어르신 한부모가정, 홀몸어르신 등 소외계층 17가구를 대상으로 밑반찬 전달과 함께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부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반찬 나눔은 관내 음식점 삼삼촌에서 삼계탕을 사비로 준비하여 특별한 반찬 배달사업이 이루어 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복지관 진행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홍교)은 신규 이용자 발굴 및 사업 홍보 위해 대면 방식의 홍보 활동으로 '찾아가는 복지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복지관'은 사회복지사들이 격월마다 직접 각 마을로 찾아가 사업을 홍보하고 복지관 이용에 대한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을 형성 하기 위해 간단한 게임과 먹거리를 제공하여 우리 복지관 직원들과 친밀감을 형성함으로써 복지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동의 제약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 할 것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활성화 '청심환' 개최

익산시, 교류의시간·토코쇼·성장사례 발표·청년농 생산 농특산물 전시·중고농기구 베품시장 등

익산시는 청년농업인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단합행사 '청심환'이 22일 오후 2시에 위치한 카페 마리아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농업인 단체 '익산시 4H 연합회'(회장 한마음)가 주관했으며, 청심환이 불안하고 긴장된 마음을 안정시켜 주듯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위로와 휴식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익산시 4H연합회 회원과 지역 청년농업인단체 '청춘이랑' 회원, 농수산물 유통농민회 미래농업연구회 회원, 청년후계농 선전자 등 청년농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익산시 청년농업인 내내를 시작으로 교류의 시간 소통·공감 토크쇼, 청년농업인 성장사례 발표, 음악 인문학 특강시간 등이 진행됐다.

청년정책 중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소개해 큰 관심을 받았으며, 한상준 테크레이션 강사가 교류의 시간을 진행해 청년농업인 간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이어 한마음 회장이 강연자로 나서 청년농업인들의 고충인 부모 세대와의 갈등에 대한 솔직한 토크쇼를 진행했다.

청년농업인 성장사례는 오산면에서 레몬을 재배하는 '108농장'의 강이관 청년농부와 왕궁면에서 장미를 재배하는 '생금농장' 정우석 청년농부가 발표자로 나섰다.



강이관 씨는 영농 기반이 없는 창업농으로 시작해 2021년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되고 지금까지 영농 활동을 이어온 과정을 전했다. 정우석 씨는 후계농이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성장하기까지의 시간들을 설명해 두 발표자는 각자 다른 상황에서 영농 활동을 진행한 사례를 풀어냈다.

행사 현장에서는 익산시 청년농업인들이 생산·가공한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중고 농기구 베품시장, 인생네컷 사진 명소 등을 운영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강영석 익산시 부시장장은 "익산시 농업·농촌의 희망이자 미래인 청년농업인들이 고단한 일상과 힘든 마음을 위로받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김관영 도지사, 전북 이스포츠 대표선수단 격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는 21일 '내동량배'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전북 대표선수단을 격려하고 환영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스포츠 선수 및 코치 8명과 선수단 운영을 맡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 융합진흥원이 참석하여, 이번 대회에서 획득한 우승컵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달하였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 대표 선수들과 코치진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이스포츠 대회에서 이룬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 국제 무대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더욱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북에 첫 종합 우승을 안겨준 전북 대표선수단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자신의 실력과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대표선수단은 지난 8월 17일~18일 개최된 대통령배 전국 결선 대회에서 리그오브레전드 종목에서 우승, FC온라인 종목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종합 우승컵을 차지했다.

특히, 전북의 리그오브레전드 랩머리팀은 16강, 8강, 4강 전세를 승리하고 결승에 진출하였으며, 이날 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준 성태호 선수는 MVP로 선정되어 대회를 석권하는 기쁨을 토했다.

또한 FC온라인 종목의 문신권 선수는 자영업을 병행하면서 첫 이스포츠 대회 출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즐거움을 자아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대통령배 이스포츠 대회 참가를 위해 지역 대표선수단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대한노인회 전북자치도연합회 항공·바둑·장기대회 성료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연합회장 김두봉, 직무대행 전영배)는 22일 전북노인회관 3층 강당 등에서 제10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배 노인항공대회 및 제14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배 바둑·장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김두봉 연합회장, 전영배 연합회장 직무대행(전주시지회장), 김영구 자문 위원장, 김홍광 노인지도자대 학장 김형열 부회장 시·군지회장 14명, 김삼중 노인지도자대 학장회장, 정희중 세계한국협회 사무총장, 배근석 전북 항공 협회장, 고환구 전북 바둑협회 이사, 주경덕 전북 장기 협회 이사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10월 10일부터 2일간 경북 영주에서 열리는 제11회 전국 노인 건강대추제 전라북도 대표선수 선발전을 겸하여 열렸으며, 이날 우승은 항공 남자부 1위 군산시지회, 2위 진안군지회 3위 전주시지회, 여자부 1위 군산시지회, 2위 순창군지회 3위 전주시지회가, 바둑은 1위 고창 유정구·이상윤, 2위 무주 오천식·이일규, 3위 군산 김형균·최창도, 장기 1위 부안 김현근, 2위 임실 이형찬 3위 고창 유은집 등이 치열한 경쟁을 뒀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항공 남·여



1위팀, 바둑 1~2위팀, 장기 1·2·3위는 제11회 전국노인건강 대추제 전북 대표선수로 출전하게 된다.

김두봉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2년간 대회를 개최하지 못해 늘 미안하게 생각해오던 중 작년에 담뭍고 3년만에 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올해 다시 대회를 이어가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 AI 성과 72명에 우수 장학금 수여

전주대학교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사업단(단장 고선우)은 AI 인재를 육성하고자 4,000만원 상당의 성과형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는 우수한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융합대학사업단 참여학과 72명의 학생을 선정, 학생들의 열정과 성과를 격려했다.

수상자들은 교내에서 높은 성적과 더불어 탐구 노력을 증명하는 학생들로, 이번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학생들의 성과를 인정하고, 미래의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할 리더로서 자신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민연(인공지능학과 1년) 학생은 "장학금 수상을 통해 나의 노력이 인정받았음을 느껴 매우 기쁘다"며 "인공지능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미래 AI 인재가 돼 가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도전과 발전을 위해 더



욱 더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고선우 단장은 "우리 대학의 미래를 주도할 탁월한 인재들을 만나게 돼 기쁘다"며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미래의 더 큰 성취를 이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은, '2024년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4기' 해단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지난 21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2024년도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4기'의 해단식을 진행했다.

지난 4월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4기로 선발된 24명의 대학생들은 5개월의 활동기간동안 △당행 브랜드 이미지 홍보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또한, 전북은행의 '전선전(전북은행의 마음이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힘으로)' 캠페인을 위해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을 이어갔다.

우수활동팀으로 선정된 전철부대팀은 "이번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전북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을 직접 경험하면서 전북은행의 지역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스스로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값진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은행과 대학생 유스(YOUTH)고객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준 서포터즈 4기 덕분에 다양한 연령대의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를 도내에서 전통 있는 대외활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민주평통 정읍시협의회, 정읍시에 고향사랑 기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읍시협의회(회장 김동환)는 22일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김동환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정읍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 기탁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소중한 기부금이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번 기부는 그들의 지속적인 사회적 기여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권역별 어린이집을 묶어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읍형 공유어린이집'과 '청소년 공감존'을 청소년문화체육관에 조성하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장수군의회, '2024 을지연습' 현장 격려 방문

장수군의회의(의장 최한주)가 지난 21일, '2024년 을지연습' 현장을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장수군의회 의원들은 장수군청 1층 근민회관에 마련된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을 찾아 3일 차에 접어든 훈련 상황을 살펴보고, 공무원들을 비롯해 군·경찰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최한주 의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땀 흘린 밤낮으로 계속되는 을지연습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면서 "국가비상사태 대응 능력 제고라는 소기의 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